여섯 번째 이야기

초록빛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를 구하는 이야기

초록빛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

교육경력 7년차 교사다. 바다가 좋아 여수로 와 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연의 낭만을 아이들도 삶에서 느끼며 살기를 바란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듣고 알기는 했지만 나 하나로 뭐가 바뀔까 하며 외면하다가, 나는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아야 했는지, 나아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했는지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막 생태환경교육을 시작했다.

개성이 뚜렷한 12명의 만5세 아이들이다. 교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교사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의 진지함을 가지고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줄 아는 기특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학급 안에서 나눈 지구를 지키는, 결국은 우리를 구하는 여러 각도의 이야기는 유아마다 가진 성격이나, 관심, 취향과 연결되어 다양하게 드러났다.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종이 안 쓰는 날?
생태 감수성은 잔소리로 길러질까
아이들에게 스며든 초록빛 선생님
아 나는 완두콩 싫어해요!
우유갑이 휴지가 된다고요?
우리 할머니집 닭은 흙도 밟고 날개도 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생태환경교육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죠
선생님은 지구를 지키는 거 칭찬해요
시간이 필요해 아니 대화가 필요해!
누구에게나 첫 시작은 있으니까
생태 텃밭 그거 왜 하는데요?
생태환경교육을 꼭 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우리가 자원순환 가게를 열어보면 어떨까?
아이가 챙겨 온 주머니 속 병뚜껑 2개
형식을 갖춘 계기 교육이 아니더라도

초록빛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를 구하는 이야기





종이 안 쓰는 날?

가끔 유아들의 생각이나 반응이 궁금할 때 칠판에 무언가를 적어둘 때가 있다.

종이 안 쓰는 날을 유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칠판에 '4월 4일 종이 안 쓰는 날'하고 적어두었다.

유아들이 등원하기 시작했다. 칠판 글자에 전혀 관심이 못 미치는 유아들도 있지만, 주변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이든이가 가방을 멘 채로 칠판 앞에 서서 글자를 읽었다. 아이들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했다. 이든이 주변으로 태윤이와 세한이도 멈춰 섰다.

"종이 안 쓰는 날? 그럼 수첩도 종이인데 수첩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럼 색종이도 종이인데 색종이도 쓰지 말라는 말인가?"

"선생님, 그럼 이든이가 어제 가지고 온 포켓몬스터 종이, 그것도 못 쓰는거예요?"

"우유갑도 종이인데 그럼 우유도 안 먹는 건가?"

아이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종이 안 쓰는 날을 이렇게 일상생활과 빠르게 연결할 줄 몰랐다. 일상 속에서 종이를 제법 잘 인지하며 지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흥미로웠다. 이때 이미 환경교육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태원이가 한마디 했다.

"그건 이면지 같은 건 괜찮고, 새거 종이는 쓰지 말라는 뜻이야"

미간을 찌푸리며 골똘히 칠판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모두 수긍했다는 듯 수첩에 스티커를 붙이러 가거나 가방을 정리하러 갔다. 올해 내가 만난 아이들은 이전 유치원 유아들과 달리 처음부터 종이를 낭비하며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다르게 고민하지 않았다. 다만 종이접기가 실패했을 때 바로 버리는 유아들이 있어서 그러한 종이들을 모아둘 수 있는 조각 종이 바구니를 따로 만들어주었더니 바로 버리기보다는 그곳을 한번 거쳐 가는 습관이 생기긴 했다. 다만 조각 바구니 속 종이를 사용하는 일은 나의 일이 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종이 안 쓰는 날에 대한 유아들의 직관적인 생각은 참 흥미로웠다. 그리고 유아들과 모여 앉아 종이 안 쓰는 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다.

"왜 이런 날을 만들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의 이전 경험에 관한 생각들을 나열했다.

"사람들이 종이를 너무 많이 써서요."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가 사라져서요."

"지구가 아프니까요."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종이를 나무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나무를 얇게 베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나무를 끓여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하고 예상했다. 함께 영상을 찾아 종이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 나무가 어떻게 종이가 된다는 건지 사실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하고 수긍했다. 이후 신문지로 재생 종이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말했다.

"우와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단순히 종이를 아껴 써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종이를 만들 때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공장을 거치고 물도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A4용지처럼 새하얀 종이는 화학 처리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이나 포장 재질을 살필 때 나무색에 가까울수록 더 친환경 종이라는 것을 눈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생태 감수성은 잔소리로 길러질까?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나간 차동 공원. 지난번보다 엄청나게 큰 개미들이 발견되었다. 요즘 고민 중 하나는 우리반 아이 두 명이 늘 망설임 없이 손으로 개미나 공벌레 등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곤충과 벌레로 재미있게 놀이한다.

생명 존중에 대해, 지구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한번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은 공벌레가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너희가 개미라면? 등의 질문을 던지며 유아들이 한 번쯤 곤충의 삶과 입장을 생각해 보기를 바랐다. 사람들이 잡으면 좋을까? 그것이 진정 개미가 원하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면서 말이다.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생명 존중을 위한 태도와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겠다 싶어 제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꽃잎반은 곤충들을 손으로 잡지 않아요."

아이들은 변화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마음속 갈등은 있었지만, 그렇게 규칙이 시작되었다. 두 명을 따라서 잡아보려고 했던 유아들이나 친구의 그러한 모습을 용인하던 아이들이 습관처럼 잡으려고 하는 두 명을 향해 곤충 손으로 잡지 않기로 했잖아! 하고 알려주기 시작했다.

어떨 때는 교사의 말을 기억했다가 지금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의미 있게 바꾸는 아이들도 있었다. 여기서 공벌레를 잡아가서 우리반 텃밭 흙에 놔주면 우리 텃밭 흙이 건강해지겠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아이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알 수 있었다.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공벌레를 만져서 놀이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나름대로 정당한 핑계를 말했다.

다른 몇몇 친구들은 곤충들에게 물을 뿌려주고, 통에 물을 담아 개미를 넣고는 거기에 풀과 텃밭에서 발견한 덜 익은 딸기, 토마토를 넣어주었다. 개미는 달콤한 걸 좋아한다면서 나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찰과 탐색, 곤충 잡기를 즐기며 놀이하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히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곤충을 손으로 잡는다거나, 곤충을 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죽은 곤충들을 발견하면 나뭇잎을 덮어주면서 자기들이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표현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시멘트 위의 지렁이를 보고는 흙으로 옮겨줄까요?라고 묻거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곤충들이 죽어, 선생님이 곤충들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했잖아! 하고 말해주었다.

여러 존재가 함께하는 것의 좋은 점이다.

어느 날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곤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하고 질문을 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말했다.



"작아서 귀여워요, 만지고 싶어요."

"어떤 먹이를 먹는지 궁금해요."

"개미가 다른 죽은 먹이를 가지고 가는 게 신기해요."

"저를 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곤충을 발로 밟으니까 만약 곤충이 되면 빨리 도망을 다니는 곤충이 되고 싶어요."

"꽃잎에 올라가 있는 나비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개미를 안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요."

"곤충이 뭘 하는 걸 보면 재미있어요."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제법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했다.

일단 유아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는 모기 같은 게 아니라면, 곤충에 관심이 많고 흥미로워했다. 그래서 자칫 작고 귀여운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인 우리가 알고 돕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금 직접적인 용어로 지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환경교육을 공부하면서 관련 책들을 읽다 보면 환경교육 측면에서 가치교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 보전 등의 바람직한 가치를 분명히 지향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주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가의 딜레마가 생길 때가 많다. 어떠한 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실천해 보면서 유의미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목으로 돌아가면 생태 감수성은 과연 잔소리로 길러졌을까?

현재의 경험까지 비추어 볼 때 잔소리로는 길러지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 쌓이기는 하는 것 같다. 모래알만큼.





아이들에게 스며든 초록빛 선생님

아이들과 텃밭 활동을 하면서 공들인 상호작용에는 우리가 모두 자연의 일원이라는 것, 곤충이나 새, 동물들도 함께 건강한 흙에서 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른 식물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 등의 가치와 태도를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반에서는 교사인 나와 친구 세 명 정도만 늘 곤충 만지지 마, 생명이야 하고 이야기하곤 했다. 애초에 곤충 잡기에 관심 없는 친구 중에는 생명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곤충이 무섭거나 징그러워서인 친구들도 많았다. 그래서 곤충을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밟아버리기도 했다.

딸기 잎에서 발견된 무당벌레가 있으면 우와! 무당벌레가 우리 텃밭이 좋아서 놀러 왔나 보다 라던가, 공벌레나 개미들을 보면 흙에서,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잡지 말자, 우리 눈으로만 관찰하자고 말하거나, 블루베리를 새가 쪼아 먹은 걸 보고 블루베리가 달콤해서 새들도 맛있었나 보다 하면서 생태 감수성과 공생관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두세 달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 교실에서도 벌레가 나타나면 죽이지 말고 자연으로 보내주라고 아이들이 살핀다.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무당벌레가 텃밭에 놀러 왔어요."
"선생님 공벌레가 여기 있는데 흙으로 보내줄까요?"
"선생님 이 딸기, 개미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야, 개미도 생명이야,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아 나는 완두콩 싫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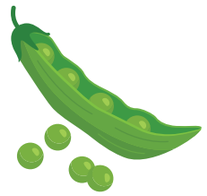
급식 시간에 완두콩이 나왔다. 하필 그날따라 완두콩이 밥과 덜 섞여 있어서인지 아이들 식판에 덜어진 쌀밥 위 완두콩 양은 내가 보기에도 좀 많았다. 아직 젓가락질이 서툰 우리반 아이들은 밥과 완두콩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 몹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날 완두콩을 좋아한다면서 먹은 아이는 한 명, 한두 알 정도 먹은 아이 몇 명, 나머지 아이들은 밥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밥에 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저 마음 자체를 좀 누그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에, 콩깍지 안에 들어 있는 제철 완두콩을 사서 유치원에 가지고 왔다.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서 반응이 뜨거웠다.

연두색 그물망에 신토불이 국내산 글씨가 적어져 있었다.
"애들아, 국내산이 뭔지 알아?"
"네 알아요, 우리나라 것이 국내산이잖아요."
"맞아, 이 완두콩은 저기 먼 나라에서 배달되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란 제철 재료여서 탄소발자국이 적은 음식 재료래. 지구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음식재료인 거지."

아이들이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알아서가 아니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어른인 나도 기억을 돌이켜보면 꼬투리 속에 있는 콩을 털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맑은 연둣빛을 머금고 꼬투리 속에 알알이 동글동글 있는 완두콩이 나도 싱그러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

"선생님 더 주세요. 더 많이 까고 싶어요."
"도르르 도르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가 구해줄게. 덥지?!"
"보들보들해."
"우둘툴툴해요."
"느낌이 좋아요, 재미있어요."
"장난감 같아요."
"엄청 귀여워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했다.
아이들과 함께 털어낸 완두콩을 직접 삶아서 먹어보는 것까지가 나의 의도였다. 한 번 삶아서

먹어보자고 하니, 정말로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몇 명의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절의 눈빛과 함께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급식에서 주어진 음식 말고 이렇게 아이들이 음식 재료 본래의 모습을 직접 만지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만나 먹어보면, 시도해 보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불편함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도전해 보았다.

삶아 온 완두콩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말했다.

"오 초록색이야!"

"흘렁흘렁해졌어요."

"뭐 하얀색 같은 게 보여요."

"냄새는 옥수수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주름이 생겼어요."

"쭈글쭈글해졌어요."

겉껍질이 주름 잡힌 것이 보였고, 냄새는 정말 옥수수 같았다.

여기서부터 내가 제안했다. 아이들에게 한 알씩 먹어보는데 처음에는 얼굴로도 말로도 무슨 맛인지 표현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괜히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정말 다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거부감이 생겨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두 번째로 먹을 때는 표정으로만 표현하기로 했다. 한 아이가 과하게 미소를 지으며 얼굴로 표현했다. 교사인 내 눈에는 맛없는 표정인 걸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물으니 맛있다는 표정 같은데요라며 웃었다.

세 번째로 한 알씩 먹어볼 때는 편안하게 말로 어떤 맛인지 나눠보자고 했다.

평소에도 야채를 싫어했던 친구들은 맛없다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지난번 급식에서는 안 먹어보았다는 친구 두 명이 막상 먹어보니 맛있다면서 손으로 한 움큼을 집어 맛있게 먹었다. 아이들이 맛을 보더니 삶으니까 맛있다면서 감자 맛이 난다고 했다.

그 이후로 밥알에 콩알과 옥수수알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아 나는 콩 안 좋아하는데 하고 말하다가도 우리 그때 먹어본 완두콩도 막상 먹어보니 괜찮다고 했잖아 한번 먹어봐라는 나의 말에 아! 그랬지 하는 표정으로 조금 덜 불편해하며 한두 알 자연스럽게 먹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아기는 다양한 맛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맛의 기준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각을 활용해 건강한 음식 재료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

급식 시간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고기가 질겨서, 이 사이에 끼어서 먹지 않는 아이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급식 시간에 정말 밥만 먹는 아이들도 있다.

가정에서도 직장,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배달 음식을 먹거나 간편한 가공식품을 먹는 경우가 많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이 무너지기가 쉽다.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의 하나가 저탄소 식문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에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가치를 알고 담는다면 지구도 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식문화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행복과 풍요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맛있다'와 '맛없다'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익숙하다'와 '익숙하지 않다'에서 시작할 수 있다.

2학기 부모 상담이 있기 전 1학기 동안 우리 아이의 성장한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었다. 한 어머니께서 이전에는 새로운 음식이나 음식 재료에 대한 거부가 많고 먹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아이가 스스로 먼저 "한 개만 먹어볼까?" 하고 시도해 보거나, "먹어보니 괜찮네!" 하고 말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다.







우유갑이 휴지가 된다고요?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우유갑 재활용이 익숙한 일이지만 올해 내가 만난 아이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교사의 제안으로 우유갑을 열심히 씻고 말리고 뜯어 모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왔다.

지역 행정복지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이곳은 200㎖ 우유갑 80개를 모아오면 두루마리 휴지 1개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하면 80개에 고작 휴지 1개냐고 다들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원순환사업의 단순한 보상체계의 리워드 일뿐, **우유갑은 정확한 방법대로 잘 분리배출하면 100% 휴지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분리배출하면 우유갑 1kg으로 두루마리 휴지 150m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마침 교실에서 사용하던 휴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바꿔온 두루마리 휴지를 소개하며 꺼내두었다.

콧물을 닦으려는 로은이에게 “우리가 열심히 모은 우유갑으로 바꿔온 휴지니까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해 줘.” 하고 말했다. 최근 감기에 걸려 콧물을 자주 흘리던 로은이는 갑티슈를 두 장씩 거침없이 뽑을 때도 있었다. 그런 로은이가 천천히 휴지를 펼치면서 고민하더니 “2칸이면 될 것 같아요.” 하며 조심스레 2칸을 뜯었다.

물론 갑티슈를 사용할 때에도 아껴서 사용해야겠지만 우리가 교환해 온 휴지를 쓸 때 필요한 만큼을 생각하고 절약해 보는 경험을 해보았으니 다른 물건을 사용할 때도 어디선가 발현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본다.

화장실에서 종이 타월을 사용하고 난 후 재사용하기 위해 모아두는 바구니에 그동안 그냥 휴지를 모아놓은 유아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우유갑을 모아서 바꿔온 휴지를 사용한 후 누군가가 그 휴지도 곱게 펴서 바구니에 올려둔 것을 발견했다.

생태환경교육이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연구 과제 아래 결국 내가 바라고자 한 것은 이러한 작은 생각과 행동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 말이다.

필요한 만큼에 대해 고민해 보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보며, 절약해 보는 것, 스스로 노력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것 말이다.

우리 할머니집 닭은 흙도 밟고 날개도 펼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려 가정에서 달걀 1개씩을 가지고 왔다.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전했다. 엄마가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그러나? 하고 말했어요. 한 아이는 우리반 텃밭에 주었던 달걀 껍데기 친환경 비료를 기억하며 달걀 껍데기를 말려서 작게 작게 해서 텃밭에 뿌려주려고 그래요? 하고 물었다.

먼저 유아들과 가지고 온 달걀들을 서로 관찰해 보았다. 약간은 비릿한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달걀에 있는 숫자가 유통기한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보다 지난 날짜를 보고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썩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닭이 알을 낳은 날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아니고 생산일자다. 그리고는 서로 색깔도 비교해 보고 깨뜨려 볼까 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에 힘을 주기도 했다.

그 후 닭과 관련된 동물복지 영상을 한 편 보았다. 영상은 일러스트 컷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실제적이지는 않았다. 너무 자극적이면 유아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연령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했다. 영상에는 알을 낳지 못하는 수컷 병아리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과 서로 상처를 내지 않도록 부리 끝을 자르는 것, 닭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달걀에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양계장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는 오 저거 저번에 봤던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봤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케이지 속에서 자라는 닭들은 흙을 밟을 수도 없고, 날개를 펼 수도 없다는 말에 불쌍하다고 말했다. 케이지를 보면서 “감옥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한이가 영상을 보다가 **“우리 할머니 집에도 닭 키우는데 할머니 집 닭은 흙도 밟을 수 있고 날개도 펼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동물복지란(卵)에 대한 주제를 다룬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적인 소비자는 아니지만, 아이들도 이러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다.

부모님과 오늘 나눈 이야기를 공유하였더니 한 부모님께서 할머니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닭이나 염소를 보다가 케이지 속 닭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의미 있는 배움이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달걀에 있는 맨 마지막 번호가 동물복지 환경에 따른 번호인지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다.

결국은 인간들이 먹게 될 식량이기는 하나, 그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소한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선생님은 생태환경교육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체 교직원 회의 시간이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급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중점 교육이 있잖아요.”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옆 반 동료 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선생님은 생태환경교육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하고 말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올해 생태환경교육을 과제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현직연구원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것이 나의 중점 교육인 것으로 비쳤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을까 아니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생태환경교육을 학급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실천과제나 수칙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기후 위기나 환경문제를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을 우리 삶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반 유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배우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생태환경교육이 있었다. 그래서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오롯이 내 개인의 삶에서도 실천하고, 그것을 아이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노력과 변화를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방문한 나의 이야기를 유치원에서 주말 지낸 이야기 시간에 소개해보거나, 물티슈를 3월부터 사지 않고 걸레를 사용하기로 결심한 나의 노력이나, 마트에 갔는데 우유갑을 재활용해 파는 휴지가 있길래 그것을 샀다거나 하는 어른인 내가 실천하는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이다.

내가 직접 구입한 수세미를 잘라서 유아의 가정에 나눔 해 사용 후기를 나누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용품들을 챌린지 선물로 나눠주면서 가정과도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지키고 구하냐고. 지구는 괜찮다고 인간이 괜찮지 않을 뿐. 지구를 구하자 지구를 지키자는 말은 곧 우리를 구하고 지켜야 한다는 뜻과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죠

급식 시간에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식판 속 음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이전 경험 속에서 별로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에 대한 거부감, 그것에서 파생되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음식들에 대한 편견들까지.

잘 먹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의 선이 분명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작정 다 먹기를 시도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다.

6월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유아들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미 받은 급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 먹을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연습하고 말해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서 지구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나누었다. 유아들과 보았던 영상 속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버려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말이다.

태원이가 갑자기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를 저 친구들이 먹는 거예요? 하고 놀라며 물었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나누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며칠간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몇 명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주 1번 다 먹기 날을 도전해 보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하였다. 나 또한 늘 먹을 만큼 음식을 받아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끔 음식을 남기게 되는 날에는 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만큼 가져왔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많다 하며 다음에는 조금 덜 가져와야겠다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아이들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한이는 다 먹고 싶은 의지가 많은데 가끔 파프리카처럼 자신이 도전하기 힘든 음식이 나오면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앉아 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앉아 있는 세한이에게 선생님이 파프리카 하나 먹어줄까? 선생님은 파프리카 좋아하거든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세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파프리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다 먹은 식판을 자랑스럽게 정리한다.

진심으로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나의 작은 배려는 아이들에게 채소도 잘 먹는 어른,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른, 나의 도전을 도와주는 어른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작은 반찬 한두 개를 먹으면서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스스로 격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놀이를 가면서 수박 간식을 싸갔다. 아이들이 냠냠 맛있게 먹었다. 그중 몇 명의 아이가 빨간 수박을 다 먹고 껍질 가까운 흰색 부분까지 먹고 있길래 이제 그 정도면 그만 먹어도 되겠다고 말했다. 서현이가 정말 바짝 먹은 수박 껍질을 나에게 보여주며 "선생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죠."하고 말했다.

우리가 학급 안에서 나눈 지구를 지키는 여러 각도의 이야기는 유아마다 가진 성격이나 관심, 취향과 연결되어 다양하게 드러났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 지점을 수박의 흰 부분까지 맛있게 먹으며 연결한 아이들을 만났다.







선생님은 지구를 지키는 거 칭찬해요

서현이는 유치원에 일찍 등원한다. 엄마가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언니와 함께 준비해서 올 때가 있다. 일찍 오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살피면서, 스스로 잘 챙겨서 언니와 오는 것을 칭찬했다.

나의 칭찬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은 지구를 지키는 거 칭찬해요."**라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 아이에게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다.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을 칭찬할 때 많이 하는 말들 중 몇 가지는 선생님은 친절해요 라던가 선생님은 우리를 알려주고 도와주잖아요 라던가 선생님 예뻐요 등인데 그런 칭찬은 처음 들어봐서 마음이 찌릿했다.

고맙다고 아이에게 말하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지구에서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오만 말(오만 가지 말)을 다 하는 편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오만가지 말들이 아이들에게도 스며들어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올 때, 그것이 마음이든 말이든 찌릿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 생태환경교육도 결국은 교사로서의 나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나의 삶이, 아이들 나아가 가정으로까지 존재로서 만나 물들어가는 것 아닐까.



시간이 필요해 아니 대화가 필요해!

올해 새로운 유치원으로 전입했다. 유치원을 옮기는 시점에서 생태환경교육을 과제로 하는 현직연구원을 참여하는 것이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러한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전입한 유치원에 와보니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생태환경교육은 사실 개개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며, 어떻게 보면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 몇 년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실천했던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유아들과도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학급 자치 모임도 해보고, 학급 안에서 유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실천했다. 그것은 학부모님께 학급 안에서의 실천이 공유되기만 해도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유아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변화를 격려해 주셨다.

하지만 생태환경교육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다. 아니 많이 다른 것도 같다. 생태환경교육은 그러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 기존의 익숙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아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가정에서도 함께 변화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학급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셨을까? 학기말이 되면 한 번 여쭈어봐야겠다.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생활에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후 위기가 먼 일처럼 느껴지거나, 삶의 우선순위에 닿지 못하면 이러한 안내와 독려가 불편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정과의 관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끼리도 바로 드러났다.

아이들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계획했던 크고 작은 실천이나 가치들이 교사들끼리도 소통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가 달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배제되기도 했다. 유치원 내에서, 가정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의미를 잃는 때가 많았다.

한 학기를 보내면서 고민들이 많았다. 어떤 교사는, 또는 어떤 가정에서는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 없거나, 이것들을 실천할 만한 여력이 없거나,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가치나 실천 행동들이 도덕적 가치처럼 선과 악으로 대립하거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관계가 켜켜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분명 옳은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방과후과정 선생님께도 마찬가지였고, 부모님들께도 변화하라고 외칠 자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 또한 쉽지 않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운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학부모, 동료 교사들과도 일상의 것부터 교육적 가치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관계 맺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생태환경교육을 비롯한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스며듦의 시간이 필요하다.

모두 알고 있지만 매번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나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를 함께 실천하자고 요구하기보다는 올해 생태환경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 작게는 학급 안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았던 분리배출부터 우유 마시고 우유갑 씻어 말려 모아 휴지로 교환하기, 손걸레 사용하기, 생태 텃밭 활동하기, 자원 순환 가게 운영하기 등을 공유했다.

나아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장바구니 사용하기, 병뚜껑 모으기,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참여하기 등을 실시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진행하는 관련 교육내용과 활동들도 항상 공유했다. 처음에는 우리반 학부모님 서너 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 주셨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몰랐던 부분에 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 어머니는 관련된 영상 중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것을 다른 부모님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셨다. 크게 관심 없어 보이셨던 나머지 학부모님들도 자원순환 활동 수거 물품을 함께 모아주시거나, 아이들에게 장바구니를 따로 마련해 주시는 등 한 걸음씩 함께해 주셨다.

사실 생태환경교육을 나의 학급에서 실천하면서 대단한 것을 실천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인 내가 지구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것, 실천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반 아이들, 나아가 교육공동체와 고민해 보고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도 내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 한 가지라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누구에게나 첫 시작은 있으니까

현직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 협의를 했다.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딜레마나, 활동 경험 등을 나누었다. 방학 전 마지막 모임인 7월에는 그동안의 개별적인 성장에 대해 나누었다.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나의 삶이 가장 달라졌어요.”

나는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뎠지만 함께 연구하는 현직연구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부하시며 삶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흉내만 내는 내가 반성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것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나도 변화되게 살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껏 군 단위의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음식 배달이라고는 치킨과 피자가 다였다. 올해 유치원을 옮기면서 시 지역에 집을 얻고 살게 되었다. 배달의 00, 요00 등의 앱을 거의 처음 접하면서 처음 몇 개월간은 다양한 소비 속에 휘둘리다가 아차 하고 깨달았다.

처음에는 시골과는 다르게 종류별로 가지각색의 음식들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감탄했다. 맛있는 거 뭐 없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한 배달 음식을 구경했다. 그러고는 몇 번의 고민 끝에 손가락 터치로 주문을 했다. 한두 번은 참 좋았다. 하지만 이후로는 거의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했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앉은 자리에서 몇만 원을 집에서 먹는 한 끼에 쓰고, 먹을 때의 맛있음은 잠깐 이후 생긴 일회용 포장 용기들…….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국내산의 제철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재료를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남았다.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몇 년 전 교사 연수에서 만난 한 선생님이 서른한 가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매일 밤마다 사 먹는다는 말을 듣고 그럴 일인가? 하고 의아했는데, 도시에 살게 되면서 가까이에 있다 보니 일 년에 한두 번 사 먹을까 말까 했던 서른한 가지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 먹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현직연구원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셨다. 왜냐하면 일회용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포장할 때도 다회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는 항상 용기를 구비하고 다닌다고 하셨다. 텀블러가 없다면 테이크 아웃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경험과 공감, 알아차림은 삶의 변화에 참 중요하다.**

어렴풋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텀블러라면 모두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은 것 자체로 좋은 행동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텀블러를 최소

100회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텀블러를 패션 소품처럼 여기면서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하고 디자인별로 크기별로 구입하고 선물로 주던 나의 무지함을 반성했다.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오랫동안 사용해야지 하는 배움을 얻은 뒤에는 한 개의 텀블러를 오래도록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를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소비만 하려고 물건을 사기전 몇 번을 다시 생각한다.

현직연구원 선생님들께서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위한 기준을 세울 때 연결된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과 노력해야 하는 것,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일에 열정이 많으셨다.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삶이 달라졌다. 올해 지역을 옮기면서 첫 독립을 하게 되었다. 집에 놓아지는 물건들의 선택 기준이 온전히 내가 되었다. 물티슈를 사지 않게 되었다. 장바구니를 자동차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먹거리이자 저탄소 식문화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작은 실천, 예를 들면 분리배출하기, 장바구니 쓰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구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법과 기준을 바꿔야 하고, 식문화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나는 비건은 절대 아니지만 급식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육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하지 않는가.

누구에게나 첫 시작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올해 생태환경교육을 삶에서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윤지로 작가님이 쓴 「탄소로운 식탁」의 한 구절을 적어본다.

"환경을 생각해 안 쓰는 스위치를 내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축사와 재배 시설, 양식장을 탄소중립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한다. 소비자로서 저탄소 먹거리를 고르고, 시민으로서 탄소를 줄이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탄소로운 식탁'을 바꿀 것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요구하자."

생태 텃밭 그거 왜 하는데요?

보통 유치원에서는 텃밭 활동을 많이 한다.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무관님께서 흙을 일궈놓으시면 구입한 모종을 심기만 하고 그것들이 결실을 맺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

정성껏 물을 주지도 매일 살피지도 않았다. 주무관님께서 물도 주고 관리해 주시면 맺은 열매를 그저 아이들과 바깥 놀이하면서 한두 알 따먹고, 거기서 자란 채소들로 요리 활동 한두 번 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텃밭 활동을 할 때 나의 마음가짐은 조금 달랐다. 텃밭 활동을 하는 것이 꼭 친환경적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해오던 텃밭 활동과는 분명 달랐다.

아이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흙을 갈고, 돌을 고르고, 기르고 싶은 모종이나 작물을 골랐다. 시기에 맞는 텃밭 작물에 대해 찾아보고, 수확물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과정, 식물이 잘 자라는 것도, 시드는 것도 가까이에서 함께 정성을 들여 살폈다. 그러면서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 살충제나 천연비료 등을 달걀을 이용해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았다. 비닐을 덮는 텃밭 대신 나무껍질을 덮어주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들을 행할 때 사용하는 나의 언어가 이전과 달라졌다.

아이들과 텃밭 작물을 수확할 때 우리가 수확한 오이나 방울토마토는 자동차 타고 배달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자라 온 것이 아니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일이겠다고 말하면 아이들도 탄소발자국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맥락적으로 그 뜻을 이해했다. 우리가 하는 텃밭 활동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구나 하고. 그러한 가치와 태도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내가 텃밭 활동을 생태환경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이유다.

텃밭 활동을 하면서 동식물과 인간들이 자연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나 의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적절한 양의 빛과 바람, 비, 물 주기의 때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발견했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줄 아는 교사가 되었다. 아직 한두 걸음일 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해왔던 텃밭 활동보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몰랐을 때에는 수확물에만 집중하다 보니 넓은 텃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교육과정으로 생태 텃밭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텃밭을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건강한 흙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든 것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9월 어느 날 아침, 가을 텃밭을 준비하기 위해 양배추와 배추 모종을 사 가지고 온 나를 보면서 서현이가 진지하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텃밭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교육을 꼭 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급마다 다양한 주제에 따른 놀이와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흔히 말하는 교사교육과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닿고, 때로는 그 무게가 무겁다. 그러다 보니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교사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준으로 특정 교육이 선택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생태환경교육도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슈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껴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생태환경교육을 중점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많고, 관련 연수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나도 그러한 교사였다. 유치원에서는 분리배출 정도만 실천했고, 집에 와서는 종이 상자를 버릴 때 테이프를 뜯지 않고 종이류 분리배출 통에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 유치원에서 놀이 재료를 살 때에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묵혀져 사용하지 않는 자료들을 어떻게 아이들과 흥미롭게 사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도 다시 놀이 재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되살려 보기도 했다.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면서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 “그냥 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종이 타월이 일반 휴지와는 달리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용 후 말려 청소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카페 화장실에서 직원이 손을 씻고 종이 타월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뽑아 닦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 장씩!’하고 외칠 번한 경험도 있었다.

생태환경교육은 우선순위에서 선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다양한 교육 사례로 수업 기술을 나누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말이다.

우리가 자원순환 가게를 열어보면 어떨까?

자원 순환의 날이었다.

학기 초 병뚜껑 모으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방앗간의 존재에 대해 아이들과 가볍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다. 2학기가 되면서 병뚜껑이 어떻게 업사이클링 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1학기의 관심 없어 보이던 꽃잎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가 모은 병뚜껑이 눈앞에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저렇게 변하겠구나가 눈에 보이니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했다.

이제 우리가 모은 병뚜껑을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저렇게 새로운 쓰임으로 되살려질 것에 설레했다.

지역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나 플라스틱 방앗간 개념의 자원순환 가게가 있었다면 직접 방문도 해보고 참여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모은 것을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다. 대부분 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1:1 교환의 개념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자원 순환의 과정을 의미 있게 경험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다면 더 와닿을 것 같아 유아들과 직접 고른 치약 짜개를 구매하여 아이들을 비롯해 가정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나누어주기로 했다.

태원이가 우리 지역에는 저런 가게가 없다고 말한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는 이걸 어디로 보낼 건지 물었다. 그러면서 직접 선생님이 갔다 올 것인지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주말에 연수가 있어서 전주 지역을 방문했다가 제로 웨이스트 가게을 검색해 보았다. 전주에 마침 자원순환 가게와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가게가 있어서 방문해 보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었다. 아이들에게 소개할 몇몇 물건을 사서 가게 앞에서 내가 등장하는 인증샷도 찍었다.

월요일에 꽃잎반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동영상으로만 보았던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선생님이 직접 다녀오고 사진 속에 등장까지 하니 아이들이 더 관심 있게 관찰했다. 왜 선생님이 사진 속에 있냐면서 흥분했다. 가게에서는 실제로 병뚜껑을 기부받고 있었고,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병뚜껑 업사이클링 단추를 판매하고 있어서 한 개를 사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내가 입고 온 가디건에 있는 단추를 만지면서 “선생님이 단추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고 물으며 병뚜껑으로 만든 거냐고 질문했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의 풍경 중 아이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발견한 것은 샴푸, 세제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이었다. 유치원 아이들이지만 마트에서 본 풍경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려서 신기했다.

그전에도 타 지역을 여행할 때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한 번씩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자체가 이색적이고 참 좋다 이런 가게구나라고 생각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다. 기후 위기나 친환경적인 생활, 자원순환 가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관심 없는 사람이더라도 오며 가며 직접 눈으로 본다면 더 마음으로 와닿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다.

“얘들아 우리 꽃잎반이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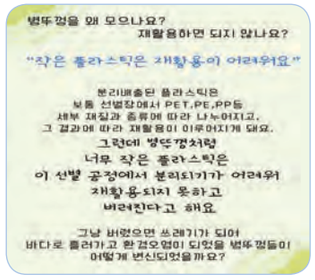
내 말을 어디까지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들면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자원 순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데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안내장을 만들어 보내 초등학교 형님들과 가족들한테도 소개해 주자고 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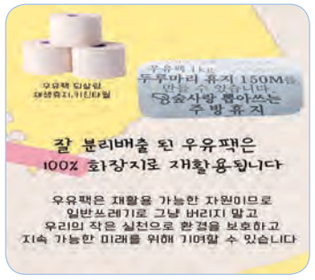
과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모이게 될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조금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관심 없던 사람들 혹은 알았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천이 그들의 첫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이 있나 하고 검색해 보았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없었지만 다행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나눔 행복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에서는 받고 있지 않는 물품인 우유갑, 폐건전지, 병뚜껑을 수거 물품으로 선정해서 운영해 보기로 했다.

자원순환 가게에서 아주 많은 수거 물품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치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활동이 초등학교에서도 소소한 관심으로 모아지고 채워졌다. 가정에 폐건전지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자원순환 가게에 붙여놓은 설명들을 오며 가며 학생들이 읽었다. 누군가는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었을 것이 잘 분리배출해서 자원으로 다시 쓸 수 있음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아이가 챙겨 온 주머니 속 병뚜껑 2개

1학기 때부터 가정과 협력해 병뚜껑 모으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12명의 학급 아이들 중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아이는 6명 정도였다. 그만큼도 기대 이상이었고,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잊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모아 보내주실 때마다 감사했다.

모아지는 병뚜껑으로 만들고 놀이해 볼 수 있도록 영역으로도 제시해 보고 병뚜껑끼리 끼울 수 있는 작은 연결 블록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소량 구입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이했다. 언젠가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보내지게 될 이 병뚜껑을 꽃잎반 칭찬 저금통에 모으는 알로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재료로 재미있게 활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다가 2학기가 되어서 그것을 한번 보내려고 아이들과 모여 색깔로도 분류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자원순환 제품으로 탄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병뚜껑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던 유아들이 “나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하고 걱정 섞인 말을 했다.

나는 친구들이 모은 것이 많아서 괜찮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현이가 다가와 우리 엄마는 내가 말해도 맨날 안 모아준다면서 속상해했다. 엄마에게도 다시 한번 말해보고 아니면 서현이가 모을 수 있는 것 한두 개라도 모아오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이삼 일이 흘렀을까, 서현이가 등원 후 나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병뚜껑 두 개를 꺼내서 줬다. 자기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러한 참여로 친구들이랑 같이 업사이클링 제품도 하나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 두 개를 주머니에 넣어온 아이의 모습을 본 후로 나는 한두 개 그냥 버리기도 했던 병뚜껑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





형식을 갖춘 계기 교육이 아니더라도

생태환경교육을 교실 속에서 활동으로 계획하다 보면 놓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가 환경 관련의 날 계기 교육이다. 유치원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풀기 좋은 날들도 있지만 학기 초 생태환경교육을 시작할 때는 그런 날들에 대한 강박이 조금 있었다. 그러다가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나누기에 어려운 주제들은 패스하기도 했다.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바깥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애들아 하늘 한 번 봐봐하고 말하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파랗다고 하거나 구름이 크다고 말했다. 그날 하늘이 뿌옇거나 흐렸다면 상호작용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하늘이 참 파랗고 푸르렀다.

핸드폰을 건네주며 자기가 찍고 싶은 푸른 하늘을 사진으로 한 장씩 찍어봐 줄래? 했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구름이 걸리게, 하늘만 나오게,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 등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바깥 놀이 활동을 이어갔다.

교실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애들아, 그림책 속에도 우리가 아까 본 것 같은 푸른 하늘이 나오는 장면이 있을까? 한 번 찾아볼까? 하고 물으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 속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이런 건 푸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고, 바다 위에 하늘도 푸르르다고 했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놀이했던 우리들의 기분이나 마음, 그리고 그림책 장면 속의 등장인물들이 푸른 하늘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어떨지 짧게 추측해 보면서 푸른 하늘의 고마움과 감사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뒤로 아이들이 푸른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몇 번 발견했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면서 다음 활동이나 다른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하는 몇몇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그런 푸른 하늘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도 했다.

무언가 자료가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깊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서 조금 의미를 담은 언어 표현으로 분위기나 상황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일곱 번째 이야기

민들레
원감 선생님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구 사랑 이야기

올망졸망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의 색깔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아이들이 좋다.
그런 아이들 곁에서 교사로 29년, 원감으로 3년째 지내고 있다.

10년쯤 전으로 기억한다. 여행 중 들렀던 가게에서 저장 용기를 가져온 현지인이 나보다 많은 양의 젤리를 싼값에 사는 것에,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랐다. 포장재가 선물의 품위를 높인다고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일순간 깨우치게 했던 사건이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내내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건강한 삶과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우리 유치원에 가장 적합한 생태환경교육을 찾아가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되어 함께 날아갈 빛나는 순간을 찾아가고 있다.



텃밭, 쉽지 않은 여정
잠깐 멈춤! 그리고 교감
우리가 기르고 싶은 채소는요!
잘 자라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텃밭 이대로 괜찮을까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기다림 끝에 돌아온 관심
태풍보다 재빠른 손길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민주적인 삶을 경험하는 장, 유치원
선생님, 너무 시끄러워요!
형님들, 조용히 걸어줄래?

매일 쓰는 종이, 새롭게 보기
종이 타월을 왜 바구니에 담아요?
시너지효과를 내는 존중과 공감
기다려주기에 지치면 변화는 어렵다

생태환경교육, 놀잇감 선택에서부터
자료를 바꿨더니 생각도 달라졌어요!
자료실에서 시작된 놀잇감 나눔의 날

학부모와 함께 가기
현저한 인식의 차이
학부모님, 탄소 중립 함께 해요!

민들레 원감 선생님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구 사랑 이야기





텃밭, 쉽지 않은 여정

잠깐 멈춤! 그리고 교감

교실에서 심은 꽃씨 화분들을 놀이터로 내놓았다. 이제 막 자라난 새싹들이 말라보였다. 화분에 새싹이 났다고하자 아이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그때 마침 ♡♡반 선생님이 옆으로 다가오셔서 화분이 좀 마른 듯 보인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와서 화분에 뿌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물뿌리개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흔들리는 싹들을 보며 웃었다.

"선생님 혼자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하자 아이들은 작은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와서 화분에 뿌렸다. 물줄기가 뿌려질 때 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몸을 새싹처럼 흔들며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

"여기 봐 흙 색깔이 검정으로 변했어!"
"진한 갈색 같은데!"
아이들은 물에 젖는 흙이 마른 흙보다 짙은 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싹에 물을 주며 율이가 소곤거렸다.



"율아, 새싹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자
평소 목소리가 작은 율이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맛있게 먹어라.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하고 방긋 웃으며 물을 주었다.

날마다 나오는 놀이터이고, 화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잠깐 멈춤!'의 기회를 통해 주변 사물을 바라보고, 진지한 표정과 몸짓으로 교감한다.** 스스로 혹은 주변의 일깨움에 반응하면서 비로소 이미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물들을 인식하고, 돌보는 일이 필요함을 알아차리고 참여한다. '잠깐 멈춤!'이 주는 의미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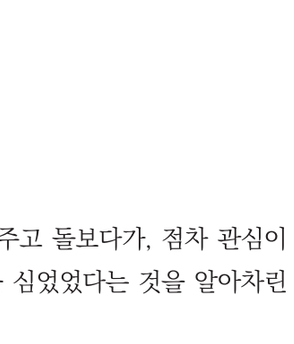
우리가 기르고 싶은 채소는요!

매년 봄이면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모종을 심고 한 달 남짓 물을 주고 돌보다가, 점차 관심이 줄어 열매가 자라고, 발그레 익어 갈 무렵에야 우리가 텃밭에 작물을 심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

바깥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자유롭게 놀이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점심시간 등 다음 활동이나 일과로 인한 시간 부족, 텃밭과의 동선 등 다양한 핑계와 이유로 왕래가 소홀해진 텃밭의 식물이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말라 죽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텃밭에 식물을 심기 전에 아이들과 텃밭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누었다.**

4월이 되면서 바깥 놀이 시간이면 비어있는 상자 텃밭을 둘러보았다. 흙을 만져보고, 텃밭에 날아든 쓰레기도 주웠다. 한편 흙이 지저분하다고 만지기를 몸서리치는 아이도 있었다.

텃밭 활동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적잖은 부담이 있었기에 올 한해는 텃밭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모종을 심고, 돌보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식물의 생태에 대해 배우기로 했다. 우리 지역에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텃밭 활동을 해주시는 곳이 많지 않아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4월 하순에 텃밭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협의한 대로 **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심어 가꾸고 싶은 작물을 정하고, 텃밭 활동이 시작될 날을 기다렸다. 아이들과 선택한 작물은 3세 무와 고추, 4세 방울토마토, 5세는 방울토마토와 고추였다.**



잘 자라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 흙과 모종, 씨앗을 가지고 텃밭 선생님이 오셨다.

“우와! 흙이다.”
“만져봐 부드러워!”
“왜 이렇게 까매요?”

돗자리 위에 쌓인 흙더미를 보며 야단들이다. 흙이 부드럽다는 친구의 말에 몸서리치던 아이들도 슬쩍 만져보았다. 둘러앉아 만져보고, 냄새도 맡으며 탐색했고, 학급에서 정한 작물을 모종이나 씨앗으로 심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상추와 오이도 심는다고 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 되돌아온 텃밭은 초록빛 싱그러운 식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상자 텃밭에 고추와 토마토가 따로 또는 같이 10주씩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텃밭 작물의 병해충을 막기 위해, 아이들이 텃밭을 꽃밭처럼 여기도록 섞어짓기와 화초도 심었으면…….’했던 바람이 날아가고, 좁은 공간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당황스러웠다. 처음으로 텃밭을 시도했던 10여 년 전 “텃밭 교육=좋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초등학교 전체 학급까지 나누고도 남을 만큼의 모종을 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미 아이들이 자기가 돌보는 것으로 한 개씩 심은 모종을 어찌하랴?’ 심기 전에 더 신중하게 이야기 나누었어야 할 부분을 놓친 것이 몹시 아쉬웠다.

2~3주쯤 지났을 때
“토마토 줄기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잘 자라서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토마토 줄기가 무성해져 서로 얽혀 야단스러워진 모습을 본 선생님들의 이야기였다.

모종을 심었을 당시 자리가 좁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하겠다며 텃밭 선생님께 여쭤야겠다고 했다.

교사 시절을 회상해보면 무성해진 줄기를 쳐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으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자를지 모른 채 손 가는 대로 가지를 쳐주었던 경험뿐이었다. 선생님들이 텃밭 활동을 알아가도록 하려면 처음 계획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텃밭 선생님의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토마토 줄기를 자르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꼭 방문해주겠다는 말씀에 너무도 감사했다.

우리 텃밭 이대로 괜찮을까요?

“선생님, 토마토랑 고추는 사이좋아요?”

한 상자에 심었던 토마토와 고추 줄기가 얽혀서 마치 하나의 식물에 모양이 다른 열매가 열린 듯 자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소리쳤다. 며칠이 지나도록 텃밭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고, 급한 대로 선생님들이 웃자란 가지를 조금씩 잘랐는데 이후에도 토마토와 고추는 키를 자랑하듯 자랐다.

마침 텃밭 선생님의 두 번째 방문 일정을 앞두고 있어 담당 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 협의를 위해 전화했다. 통화 중에 며칠 전 우리가 모두 퇴근한 후에 텃밭 선생님이 이미 다녀가셨고, 3세 반에서 심었던 열무를 솎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일주일 가까이 나도 선생님들도 모르고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텃밭 선생님 일정이 너무 많아 5월 중에 방문이 가능한 날은 모두 유치원 행사일과 겹쳐 있다며 힘없이 이야기했다.**

텃밭 선생님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통화를 했다. 우리 유치원에서 신청이 늦어져 연간 일정을 잡지 못했고 당월 예약된 일정이 없는 날에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여섯 번의 활동이 남아 있는데 매번 일정 잡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담당 선생님도 막막했겠다 싶었다.** 토마토 줄기를 자르는 데 참고할 사진이나 그림 자료도 없다고 했다.

선생님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텃밭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전문가에게 배우면서 함께해 나간다는데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다. 토마토 줄기를 자르는 일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여쭙거나 관련 도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신청이 늦었더라도 그때 바로 연간 일정을 잡았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겹겹이 쌓였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5월 말 연휴를 보내고 며칠 만에 텃밭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빴다. 달린다 싶었던 걸음을 멈추고 뒤따르는 우리를 불렀다.

“선생님, 오이가 이상해요.”
“잎이 노란색이에요.”
“여기 점도 있어.”
아이들은 달라진 오이 모습을 금방 알아차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오이

에 병이 온 듯했다.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비추는 곳에 심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오후에 선생님들이랑 병든 오이를 구할 방법을 이야기했다. 한 선생님이 다른 유치원에 근무하실 때의 경험을 들어서 식물병원(유치원 근교의 농자재 가게)에 가면 적절한 친환경 약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회에 EM 발효액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EM 원액에 아이들과 함께 쌀뜨물, 밀가루, 천일염, 설탕을 넣어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 버렸고, 현충일을 보내고 출근했다.



"어! 오이가 없어요."

"이게 오이에요?"

신율이와 한루가 싱그럽던 초록 줄기와 잎은 검게 탄 듯 말라 있고, 시들어진 오이가 흙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말했다. 옆 상자의 토마토, 고추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자신이 가리킨 것이 오이가 맞다고 하자 신율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오이가 왜 주황이에요? 잎도 줄기도 다 말랐어요! 이제 오이는 못 키워요?"

하며 입을 삐죽거렸다.

아이들에게도 오이에게도 많이 미안했다. 발견했을 당시 바로 조치했더라면 오이밭을 망가뜨리지 않았을 텐데…….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귀한 생명도 함께해 온 시간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뒤늦게 배우게 되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온 관심

"토마토 줄기가 너무 무성해서 잘라줬어요."

아이들과 바깥 놀이하고 돌아오신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작물들이 자라나도 텃밭 선생님과의 다음 일정을 잡지 못했다. 선생님들은 바쁜 텃밭 선생님과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하고, 심어진 작물을 돌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의욕을 잃어버린 선생님들이 작물들이 죽지 않게 물을 주고 돌보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어떻게라도 해 볼 여지가 있었지만 지쳐가는 선생님들을 계속 독려하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선은 선생님들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제 막 식물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중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

놀이터를 나다닐 때마다 텃밭이 눈에 밟혔다. 물을 주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모두 같은 종류인 줄만 알았던 고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 꽈리고추, 피망까지 다양했다.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부터 선생님들의 관심이 다시 텃밭에 미치기 시작했다.** 소홀해진 틈을 타서 시드는 작물들에 물을 주기 위해 긴 호스를 준비했고, 틈틈이 물을 주셨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방울토마토는 청포도 마냥 탐스러운 열매를 방울방울 매달았고, 방학 동안 발갛게 익어갔다. 아이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돌아오며 하나둘 익어가는 열매를 따서 깨끗하게 씻어 입에 넣고 사탕처럼 굴렸다. 햇살과 바닷바람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방울토마토는 새콤달콤 향과 맛이 강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주는 물을 먹고 실하게 영글고 있었다.

태풍보다 재빠른 손길

방학 중 근무하러 가는 출근길에도 라디오에서는 연신 태풍 '카눈' 북상 소식을 전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일찍 출근하신 선생님이 태풍이 온다며 텃밭이랑, 나팔꽃 커튼을 걱정하고 계셨다. 뒤늦게 출근한 선생님도 태풍이 화분이며 텃밭 식물들을 휘저어갈까 걱정이 된다며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텃밭 활동에 버거움을 느끼고, 2학기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선생님들이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바람에 다치기 전에 정리해주고 싶었나 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어 키우던 것인데……, 텃밭 열매들이 이제 막 여물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태풍이 지나간 후의 처참함을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마르거나 시들해진 작물과 화분을 정리하기로 했고, 선생님들의 손길은 재빨랐다.**

그날 밤과 이튿날 오전에 태풍은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다.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텃밭으로 나갔다. 방울토마토와 고추는 맑은 태양 아래에서 붉게 익어가고, 미리 정리해 둔 화분이 놓였던 자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파란 하늘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9월 말이 지나도록 텃밭에는 지난봄에 심겨서 태풍을 견뎌낸 기특한 꽈리고추와 피망이 열매를 키우고 있었다.

1학기 교육과정 평가회를 하면서 개학 후에는 텃밭 활동을 갈무리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가전제품 활용으로 텃밭 활동을 대신하고 싶다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셨을 때, 텃밭 활동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텃밭 활동은 모종을 심고 먹거리를 수확하여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흙에 사는 생물을 소중히 다루고 교감하며, 생명체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과 공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수확물을 이용하여 요리 활동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다고 생활가전이라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아이들이 만나는 일상은 유치원이 아닌 곳에서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선생님들께 전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계절이 바뀌어 빈 화분에 가을꽃을 심기로 했다. **꽃가게에 갔던 선생님들이 부추와 상추도 사와서 심었다. 텃밭 활동을 힘들어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반가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던 것 같다.**

아침저녁 쌀쌀해지면서 텃밭에 남아 있던 식물들이 말라갔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정리하기로 했다. 겨울에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시는 선생님께 시금치와 루꼴라가 잘 자란다고 했더니 곧 심기로 했단다.

텃밭 활동을 힘들어하면서도 작물들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는 선생님들을 기다린 보람일까? 겨울 텃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고맙다. **힘들지만 겨울에도 잘 자라는 작물을 아이들과 키워보겠다고 새롭게 시도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주적인 삶을 경험하는 장, 유치원

선생님, 너무 시끄러워요!

유치원 통학버스로 등원하는 유아는 20명이다. 전체유아의 40%에 가까운 수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 내리면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인사하고 이야기하느라 바쁘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손소독제를 짜주면 손바닥을 비비며 체온을 재고, 교실로 간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서로 먼저 교실로 가고 싶어 안달인 아이들은 교실까지의 긴 복도를 가느라 뒷모습 보이기도 바쁘게 '우당탕 탕' 회오리 지나가듯 간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모습을 보며 출입구에서 가까운 3세 교실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들이 주로 4·5세인데다 교실까지 뛰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후에 3세 선생님께 불편함은 없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다은이가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다.

"선생님, 언니 오빠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쭸더니 4·5세 담임선생님들께 복도에서 조용히 걷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다음 날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형님들, 복도에서 조용히 걸어줄래?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복도를 뛰어 교실로 갔다. 복도 통행 문제를 두고 몇 번 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3세 유아들인데 그 감정을 담임선생님이 전달하고, 4·5세 담임선생님들은 학급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3세 유아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을 전달할 창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3세 유아들이 형님들의 교실을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선생님들이 시간을 조율했고, 드디어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다.



5세반 유아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동생들의 방문과 배경 이야기를 듣고 사뭇 진지해진 표정으로 앉았고, 3세 유아들은 형님들을 바라보며 교실에서 연습한 대로 합창하듯 말했다.

"형님들, 복도에서 조용히 걸어줄래?"

이어서 3세 담임선생님이 형님들이 복도를 뛰어가서 동생들이 너무 불편하대. 선생님도 너희가 뛰어가다 넘어질까 봐 걱정이야. 하시자 다들 조용히 걷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었는지 3세 유아들의 목소리는 4세 형님들 교실을 방문했을 때 훨씬 더 커졌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물론 단박에 변화가 오지는 않았다. 먼저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해 보는 경험을 가졌던 3세 유아들은 복도를 뛰어가는 형님들을 보면 조용히 걸어달라고 이야기했고, 형님들 또한 동생들을 의식하게 되었는지 동생들 교실 앞에서는 뛰는 걸음을 멈추고 걷게 되었다.



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듣고, 형님들은 문제 상황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게 되었다. 나아가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여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생활안전(환경보전)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 쓰는 종이, 새롭게 보기

종이 타월을 왜 바구니에 담아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종이 타월 사용은 일상화되었다.

2022년 3월부터 매주'금요일은 종이 안 쓰는 날'을 운영하면서 종이 아껴 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손 씻는 횟수는 여러 차례이고 아이들이 다녀간 화장실은 휴지통에 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타월로 지저분하게 느껴졌다.

전임지에서 손을 닦은 종이 타월을 바구니에 펼쳐 담고 마른 후 재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다. **선생님들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의견을 내는 일을 잠시 보류했다.** 새 학기가 되고 바쁜 일과를 보내느라 종이 타월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자료실에서 적당한 크기의 바구니를 찾아서 화장실에 두고 손을 씻고 나올 때마다 사용한 종이 타월을 펼쳐 담았다. 이를 본 3세 유아들이 궁금한 듯 물었다.

"종이 타월을 왜 바구니에 담아요?"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 타월이 마르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담고 있어."

하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화장실에 왔다가 내가 종이 타월을 바구니에 펼쳐 담는 것을 보고, 작은 손으로 사용한 종이 타월을 펼쳐 담았고, 친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유아들도 그것을 왜 계속하는지 어떻게 다시 사용하게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종이 타월 사용에 관한 선생님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 바구니에서 말린 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써도 괜찮을지 염려된다, 젖은 수건이 겹쳐 있어 마르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 걱정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장난감 소독기에 넣어서 말리면 좋겠다는 대안도 있었다.



선생님들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므로 쉽지는 않았다. 사용한 종이 타월을 바구니에 펼쳐 담고, 잘 마르지 않을 때는 장난감 소독기에서 말리자는 의견을 좇아가보기로 했다.

시너지효과를 내는 존중과 공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종이 타월은 잘 찢어지지 않는 질 좋은 펄프로 만들어졌다. 손을 닦고 구겨진 것을 펴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고, 말려서 다시 쓰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았다. 이제는 3세 유아들도 제법 잘 펼쳐 담는다. 금방 마르는 편이지만 장마철이 걱정이라면 장난감 소독기를 잠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이 묻은 수건들이 잘 마를 바구니도 생각해보았다. 바닥을 제외한 네 면에 구멍이 뚫린 바구니라면 바람이 잘 통해서 적당하겠다. 종이 타월을 담고, 말리기에 적당한 바구니를 필요한 만큼 더 구해서 화장실에 놓았다.

교실에서는 유아들과 화장실 바구니의 쓰임을 이야기 나누었고, 사용한 종이 타월을 펼쳐서 담기로 약속하였다. 화장실 종이 타월 통에는 유아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한 종이 타월을 바구니에 담아달라는 카드 메일을 부착하였다.



화장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손을 닦은 종이 타월을 바구니에 펼쳐 담았고, 내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듯 응시하다가 못 알아차리면 먼저 말을 건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염려와 걱정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종이 타월을 말려서 다시 쓰려는 시도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해주었고, 선생님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실천하게 되었다. 서로에게 마음을 맞추고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공감이다. 구성원을 향한 서로의 존중과 공감은 시너지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바쁨,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고 종이 타월 한 장에도 지구 사랑의 마음을 담아보기로 했다.



기다려주기에 지치면 변화는 어렵다.



정성껏 말린 종이 타월이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즈음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게시되었다. 종이 타월에 사인펜 줄을 긋고 물에 넣어 그림이 번지는 것을 실험하며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장마철 장난감 소독기에서 보송하게 마른 종이 타월이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밖에도 유아들은 흘린 우유를 닦거나 미술 놀이 후 책상을 정리할 때, 선생님들은 창틀이나 문틀의 먼지를 닦을 때 사용하고 있다며 처음 생각과는 달리 여러모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아도 성인도 놀이나 활동에 주체가 되어 참여할 때 훨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한다. 기다려주기에서 지치면 변화는 어렵다. 함께하는 이들의 호흡에 맞추고, 발걸음에 맞춰 생각을 공유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조율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



생태환경교육, 놀잇감 선택에서부터

자료를 바꿨더니 생각도 달라졌어요!

공개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놀이와 활동이 소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일상의 것과는 다른 놀잇감을 제공하기도 했었다.

수업 사전협의 시간에 유아가 자신이 선택한 환경인쇄물에서 지워진 자음 자를 찾아보고, 부모님이 종이에 써주시면 재료를 올려서 꾸미는 활동을 계획한 선생님의 수업안을 보며 이야기하였다.

"부모님이 써주지 않으면 글자 모양 꾸미기가 어려운 유아들이 많은가요?"

"병뚜껑이나 작은 블록으로 구성 놀이를 자주 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사용하면 구겨지고, 찢어질 종이를 대신할 재료는 없을까요?"

"……."

광목 손수건은 어떤지 묻자 아직 써보지 않았지만 시도해보겠다고 하였다.

수업 공개가 끝나고 선생님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환경인쇄물로부터 시작된 글자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 탐색의 과정과 함께 광목 위에 다양한 재료로 꾸민 자음 글자 사진을 게시했다.





"종이를 사용하려던 계획이 바뀌면서 병뚜껑과 단추, 스팽클 외에 자연물 자료는 없을까 찾아보다가 나무 조각과 작은 돌도 포함했어요. **평소 자유롭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종이는 미끄러워 올려 둔 재료들이 흔들리거나 종이 자체가 움직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종이가 접히고, 찢길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종이와 달리 광목 손수건처럼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보고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사후협의에서 나눠주신 말씀이다.

자료실에서 시작된 놀잇감 나눔의 날

유치원에서 아쉬운 공간을 고르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료실을 꼽을 것이다. 우리 유치원은 자료실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분기별로 치우는데도 공용공간이라 교실에서 꺼내놓은 놀잇감과 교수 자료들이 들어차기 일쑤이다.

정리를 하는 중에도, 하고 나서도 걱정이 줄을 이었고 놀잇감을 정리할 방법을 이야기 나누었다. 자료실이 사용하지 않는 놀잇감과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리하느라 너무 힘들다. 힘들지만 필요한 놀잇감을 찾는 횡재도 가끔 있다 등이었다. 그래서 적재 되어 있는 놀잇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았다.

"복도에 꺼내놓고 필요한 학급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방법인데 서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놀잇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교실에서 유아들과 필요한 놀잇감을 정하면 좋겠어요."

"놀잇감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져가고 싶은 학급을 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며칠 뒤 '놀잇감 나눔의 날'을 가졌다. 미리 찍은 사진으로 교실에서 놀잇감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놀잇감을 정한 다음 복도에 전시된 놀잇감에 스티커를 붙였다.

"우리 반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스티커가 있네!"

붙여진 스티커가 한 개면 선택한 학급으로 가져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둘 이상일 때는 협의가 필요했다. 5세와 4세 학급에서 같은 놀잇감에 스티커를 붙였다. 5세 유아들은 우리가 형이고 곧 유치원을 마칠 테니 먼저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4세 유아들은 양보하기로 정하고 형님반 교실을 방문해서 양보했단다. 그 소식을 듣고 4세 유아들이 기특하다 싶어 담임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던 중 양보하자는 의견이 먼저 있었고, 교실 장에 똑같은 교구가 있는 것을 한 유아가 알아채서 양보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다. 이후 5세 유아들은 동생들에게 장난감을 양보해주어 고맙다고 영상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다.



나눔의 날에 가져간 놀잇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묻자 아이들의 놀이 사진 사진을 보여주셨다.



자료실을 정리하던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놀잇감 나눔의 날'을 통해 아이들은 존중, 배려와 감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놀잇감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공간이 생겼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학부모와 함께 가기

현저한 인식의 차이

2월 말 입학식 준비로 바쁜 틈에도 학부모님과 함께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해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댔다. 유아도 학부모님도 환영받는 분위기의 입학식을 연출하되, 관행적으로 해오던 입학식과는 달리 행사용 일회용품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준비하자는 편으로 선생님들과 의견이 통했다.

우리의 계획은
첫째, 흔한 부직포 덧신 대신 실내화 준비하기
둘째, 현수막은 PPT 화면으로 대신하기
셋째, 사전에 학부모님께 텀블러 개별 지참 안내 문자 보내기
넷째, 따뜻한 물과 차를 준비하고 일회용 종이컵은 놓지 않기
넷째, 그림책을 스캔하고 교원이 함께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더빙하여 그림책 감상 시간으로 축하와 환영 더하기였다.

입학식 당일 등록대에 준비해 두었던 따뜻한 물은 다른 용기로 옮겨지지 않았다. 행사를 마치고 사후협의를 하면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무척이나 아쉬웠다.

다시 기회가 왔다.

교육과정 설명회와 학부모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바로 앱에 공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역시 예상을 벗어났다.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종이컵이 없어요.”
“…….”

학부모님들은 행사 중 갈증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마실 물을 담은 텀블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정말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려야겠어요.”
앱 공지를 맡았던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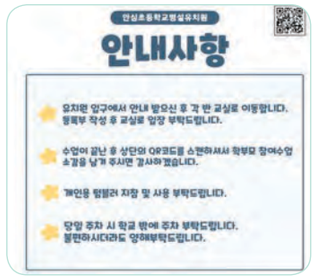
학부모님, 탄소 중립 함께 해요!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태환경교육에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많은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을 그간의 행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유치원에 방문한 학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불편 사항을 찾아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방법들을 계획하여 행사를 운영했다.

첫 번째는 행사 안내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두 번의 행사를 하면서 홍보 미흡으로 유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실천 의지를 전달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2주일 전부터 일주일에 1~2차례 교실 이동 방법, 등록부와 참관록 작성, 텀블러 지참, 주차 방법 등을 앱으로 공지하였다.







두 번째는 등록 방법이었다.

유치원 현관은 두 곳이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한쪽 현관만 사용하고 있었다. 현관 안쪽에 수기 등록대를 두었을 때의 지체 예방 및 교실과 수업 공개 이후 부모교육 장소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등록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자녀의 이름, 학급 이름, 학부모 이름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세 번째는 참관록 작성이었다.

다른 부모교육에 비해 수업 공개는 학부모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종이 대신 패들릿 참관록을 활용하여 종이도 아껴보기로 했다. 참관록이 공개되어서인지 기록도 많았고, 수업을 통해 바라본 자녀의 모습과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참관 소감이 다수 눈에 띄었다.





네 번째는 다과 준비였다.

날씨가 더워지는 5월 중순, 시원한 음료나 물이 좋겠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커피와 물, 얼음을 준비했고, 미리 안내한 덕에 다수의 학부모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후 협의회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첫째, 사전 안내로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했다.



행사 2주일 전부터 주 2회 키즈노트 앱을 통한 학급별 놀이 계획안, 교실 이동 방법, 등록부와 참관록 작성, 텀블러 지참, 주차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학부모님들도 안내 사항을 이해하고 있었다.

둘째, 충분한 협의와 안내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였다.

선생님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탄소 중립 실천과 함께 운영 중인 미래형유치원 홍보도 고려하게 되었다. 테블릿을 이용한 등록부와 참관록 작성, 텀블러 지참 등을 안내하여 종이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실천하고, 등록과 참관록 작성 등이 새롭지만 흥미로웠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행사 계획에도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고민하고,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개인용 텀블러 지참 및 사용 바랍니다. 보다는

“저희는 따뜻한 차와 커피를 준비하겠습니다.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준비하여 주세요.”

로 탄소 중립 함께 실천하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023. 유치원 현직연구원 개발자료

심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여덟 번째 이야기

알면 유익한,
알면 실천하게 되는

지구人을 살리는 생태환경 이야기

현직 연구원 2년 차이며 원감 생활은 3년 차이다.

현직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니, 원감이기에 유아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교사들과는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만큼 벌어진 경험 차이, 내가 받은 연수나 적용하고자 하는 배경지식에도 격차가 있었다. 인식 차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위해 도움 되는 자료는? 지구 생태환경의 심각성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 끝에 가정통신문 형식을 빌려 교사와 학부모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절박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생태전환이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보고,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기후위기 주범이 육식 생활이라구요
알 권리·선택할 권리, 채식 급식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동물에게도 동물복지가 필요하대요.
토종 씨앗 종자가 왜 중요할까요
IPCC 1,5 특별 보고서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종이 안 쓰는 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나 만의 별을 찾아보는 날
모든 인간에게는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국제 산의 날
2022. 현직 개발 자료 활용 TIP

탄소중립 실천

기후위기 주범이 육식생활이라구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기후 위기의 주범이 육식 생활이라는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왜 기후 위기 관련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 육식 생활이라고 할까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랍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 등의 여러 가지 가스 발생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메탄가스가 우리의 육식 생활과 관련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종류와 발생 요인

온실가스	가스 발생 요인
이산화탄소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가스
메 탄	소, 돼지, 염소, 양 등의 가축에서 나오는 방귀, 트림, 분뇨 등의 가스, 이산화탄소의 56배의 가스 발생
아산화질소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 이산화탄소의 298배의 가스 발생
블랙 카본	숲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 이산화탄소의 2530배의 가스 발생



출처: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람들이 육식을 자주 할 경우 가축의 대량 사육이 필요하고, 가축의 대량 생산한 만큼 메탄가스도 증가하고, 가축을 위한 사료(옥수수, 콩 등)를 생산하기 위해 농경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작지의 80%가 가축 사료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숲을 태우기 때문에 더 많은 블랙카본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경작지에서 많은 비료를 사용하게 되어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되어 있답니다.

육식생활의 증가 ▶ 대량 가축 사육 메탄가스 발생 ▶ 농경지 비료 사용 아산화질소 발생 ▶ 농경지를 위한 숲 태움 블랙카본 발생 ▶ 지구 온실가스 증가 ▶ 지구열섬화 지구가속화

참고 자료

유튜브 우리집 식탁이 기후 위협? 육식의 역습

[기후미식 P146~152, 이의철, 위즈덤 하우스. 2022]

탄소중립 실천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채식 급식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알 권리 선택할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02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배우협동조합 시상식 등 세계적인 영화제들의 파티에도 모두 비건, 즉 완전 채식 식단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 학교들은 점점 더 채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 학교에서 주 1회 채식 급식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였고, 뉴욕시도 매주 금요일은 '비건 프라이데이'로 정해 백만 명이 넘는 공립학교들이 비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농림부는 주 3회 채식 급식을 학교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 학교들이 이렇게 채식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수의 채식주의자만 채식을 할 때보다 학교 전체, 도시 전체, 나라 전체가 채식을 지향할 때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청소년의 건강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저탄소 급식하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채식 급식을 선진국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채식이 얼마나 유익한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지구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 학교급식에서 제대로 된 채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식처럼 보이는 반찬이나 국에도 달걀, 유제품, 해물이 섞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일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요구하는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변화도 빨라지겠지요. 우리의 한 끼의 식사로도 뜨거워져 가는 지구라는 행성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

유튜브 세상을 바꾸는 채식

유튜브 나와 우리와 함께 사는 환경에 대한 배려

[채식하는 이유 P53~61, 황윤, 최훈, 안백린, 전범선, 의의철 공저,.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22]

기후위기
생태환경
교육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초가 되면 볼 수 있었던 벚꽃이 3월 말이 되자 전국적으로 활짝 피었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2023년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12일이 빠르게 피었다고 하는데요. 벚꽃 축제를 계획하고 있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축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빴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3월 말 주변의 산과 들에는 산수유꽃, 개나리꽃, 벚꽃 등이 피어있고, 4월과 5월이 되어야 개화하는 배꽃, 복숭아꽃, 살구꽃 등이 동시에 개화하여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순신 공원에서

2023년 올해는 봄꽃의 개화 시기가 9일~17일 빨라짐으로 인해 양봉 업체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봄꽃과 함께 나비, 개미, 벌 등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하면 적은 양의 꿀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물과 곤충 등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계절 활동을 시작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던 종들이 달라진 기후에 다른 속도로 반응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태적 관계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찍 핀 봄꽃은 우선 꿀벌 등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야생벌들은 대부분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데, 땅속은 대기보다 더 늦게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올해처럼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거나 봄에 건조하면 땅속과 대기 온도 격차가 더 커지게 되어 일찍 개화한 꽃은 수분을 매개할 벌이 없고, 땅속에서 뒤늦게 나온 벌은 먹이(꽃)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친다고 합니다. 시간적 불일치(탈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는 더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변의 핀 꽃들을 보며, 꿀벌의 소중함도 이야기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 도시 꿀벌들의 부지런한 하루

〔이 속도면 2월 벚꽃 축제....., 꿀벌에게 악몽 덮쳤다. (중앙일보,2023,3,28,)〕

탄소중립
실천

동물복지도 필요해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동물복지」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편안한 잠자리,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며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 길러지고 있는 가축들에게도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보장받는 것을 동물복지라고 하며, 동물들이 배고프거나 아프지 않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돼지, 닭, 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디에서 자라고, 어떤 사육환경에서 커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닭	부리를 이용하여 쪼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모래 목욕하는 것을 좋아해요. 닭의 평균 나이는 8-10년 사이래요. 우리가 먹는 닭은 30일 된 닭이래요.
젖소	넓은 풀밭을 걸어 다니며 풀 먹는 것을 좋아해요. 임신을 해야 젖이 나와요. 우유를 주기 위해 항상 임신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우유를 너무 많이 짜서 고름이 생기기도 한 대요.
돼지	음식을 먹는 곳과 변을 처리하는 곳의 공간을 달리해서 생활을 해요. 갇혀 지내는 돼지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른 돼지의 꼬리를 깨물기도 한답니다.

※ 공장식 축사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처음에는 1층 구조에서 기르다가 지금은 3층까지 올려서 사육을 하고, 닭은 A4 용지 만한 크기의 공간에서, 돼지와 소는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운답니다. 움직이기 힘든 공간에서 먹고 자고 배변을 하다 보니 깨끗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다량의 항생제를 주사하고 있답니다.

동물에게서 얻은 음식을 먹을 때 소중한 먹을거리를 준 동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동물도 살아 있을 때 최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고, 먹을거리를 준 동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잡식가족의 딜레마

갑각류도 고통 느껴... 랍스터 산채로 삶으면 불법 (SBS 뉴스, 2021.7.12.)

〔모두의 착한밥상연구소, 노민영, 홍하나 공저, 파란자전거, 2022〕

탄소중립 실천

토종 씨앗 종자가 왜 중요할까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토종 씨앗 보존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부터 세대를 이어 현존하고 있는 토종 씨앗이 다양할수록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옥수수와 강원도에서 자란 찰옥수수는 토양과 자라는 생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맛과 크기가 다릅니다. 씨앗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환경에 잘 맞고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것들이 선택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오늘날 농업 작물 품종의 7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은 생산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 보니 정부나 농가의 찾는 수요가 높아짐으로 점차 토종 씨앗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종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씨앗의 종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전 세계 생태계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다양한 맛과 전통의 맛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각 나라와 지역의 고유한 맛을 지키고, 건강한 작물 생태계를 살리며,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얻는 힘을 키우려면 나라별 지역별 토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종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종자의 주인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우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우리 토종 씨앗의 보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식물의 씨앗의 생김새, 모양, 색깔, 느낌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공짜로 씨앗 빌려줍니다
전국 씨앗 도서관

유튜브
달고 풍성한 할머니의 밥상
"비밀은 토종씨앗"

토종 토마토 판매: 그래도 팜 (https://tomarrow.com)
토종 쌀 농사 및 판매: 곡성 미실란 (www.misillan.com)
토종 씨앗 판매 또는 무료 나눔터: 토종 종자은행, 토종 씨드림
[모두의 착한밥상연구소, P126~139, 노민영,홍하나 공저, 파란자전거, 2022]

탄소중립 실천

IPCC 1.5℃ 특별 보고서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나라) 간 협의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규명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기후 정보 포털)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1.5℃로 온도 상승폭을 제한했을 때와 2℃로 제한했을 때 벌어질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였음
- 산호초와 같은 생태계의 문제부터 농업생산성과 같은 경제적인 분야까지 분석을 함
- 현재까지 온도가 1℃ 정도 상승하였음(2018년 기준)
- 온실가스를 계속 내뿜으면 빠르면 2030년 경에는 1.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

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보다 4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큰 메탄가스도 문제다
- 하지만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빠른 속도로 제거된다
- 메탄가스는 30% 이상 줄여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나요?

- 사하라 이남의 중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옥수수나 쌀, 밀 등의 생산량은 전 세계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로 온도 상승을 제한 했을 때 보다 1.5℃로 제한하는데 성공했을 때 생산성이 50% 이상 증가 함

과거 온도 상승 폭을 1.5℃ 제한할 수 없다는 보도가 많았다, 실제로 그런가요?

- 된다 안된다처럼 분명히 갈라서 답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화학, 과학적 법칙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은 가능하다고 평가됐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한지 대답할 수 없다. 1.5℃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0으로 줄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 산림조성같이 널리 알려진 방법부터 탄소 저감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하나의 방법을 고집할 건 아니다. 각 국가가 모든 선택지를 동원해 지구온난화를 막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 연료의 사용은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화석 연료 중 가장 탄소 배출양이 가장 높은 석탄은 많이 줄여야 하고, 천연가스는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을 병행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석유 대신 전기차를 사용하면 줄일 수 있음

지구는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생명체를 보듬고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

동양사이언스 일문일답으로 요약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2018.10.10.)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한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낀 스웨덴의 한 청소년이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파업' 피켓을 들고 결석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자신의 시위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고,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진 스웨덴 사람들이 금요일에 국회의사당에 모여 시위를 한 결과 스웨덴의 정치권을 움직여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어 기후행동에 공감하고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나요?'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세대'의 등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합류하게 되어 '청소년 기후행동'이 탄생하게 되었고, 2019년부터 기후 파업을 조직하고 2020년 3월' 기후 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2020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비상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교육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기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을 잠시 빌려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지구는 과거 선조로부터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듯이 우리 역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유튜브 지구온난화를 문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

유튜브 유엔에서 격정 연설 한 16살 '소녀 환경운동가' 툰베리

〔서로를 살리는 기후위기 교육, P146~153, 윤상혁 공저, 민들레.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과 같은 기후 위기와 관련한 재난 등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발현되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렸고, 2023년 3월이 중반이 된 지금까지도 호남(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8개월째 가뭄으로 인해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 빨랫감 모아서 세탁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수도 밸브 수압 저감하기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요금 감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을 빼고 가능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이 없다면 농사도, 의류 산업도, 생필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물 개발 보고서〉 최근호에는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데, 물 부족으로 인해 20억 명가량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 수요 증가,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은 더욱 심해져 갈 것으로 보이며, 농약과 비료 등이 사용된 농수와 산업 용수, 도시 폐수의 80%가 여과 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만 있어도 질병의 3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활용수도 중요합니다, 생존의 기본이 되는 물,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 구호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세계 물의 날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세계 물의 날 카드뉴스

이젠 마음 놓고 물 마셔요. 한국 도움으로 물 부족 해결한 케냐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37~41, 최원형, 블랙피쉬.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종이 안 쓰는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오늘은 '종이 안 쓰는 날'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한 환경 단체가 단 하루 만이라도 종이 사용을 줄이고, 나무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어, 4월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해졌답니다. 4월 4일을 종이 안 쓰는 날로 정한 까닭은 식목일 전날이기 때문이지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아도 일상에서 종이 사용을 줄인다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받아보는 신문, 화장실에서 만나는 화장지, 배달된 물건을 포장한 종이 상자, 현관문에 붙은 각종 전단지, 테이크 아웃 종이컵, 물건을 사면서 받는 영수증, 종이 쇼핑백, 카페에서 사용되는 종이 빨대, 복사용지, 스케치북 등에 이르기까지 종이로 만든 수많은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한국제지연합회)에 의하면 1년에 970만 톤의 종이가 사용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건 포장용과 인쇄용지로 쓰인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종이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종이 사용을 위한 나무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숲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생활속에서 종이를 덜 쓰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종이를 아끼는 습관

1. 종이의 폐지 활용률을 높여요. (분리배출 제대로)
2. 종이 영수증 대신 이메일로 받아요.
3. 휴지 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4.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5. GR 인증 마크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를 사용해요.
6. 종이도 용도나 코팅 유무, 스프링 유무에 따라 제대로 분리배출해요.
7. 덜 하얀 종이 또는 재생 종이를 사용해요.
8. 표면을 너무 많이 가공하지 않은 종이를 사용해요.

Good Recycled

우수 재활용
제품인증 표시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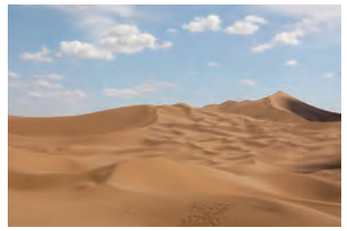
'종이 안 쓰는 날' 카드 뉴스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47~52 최원형, 블랙피쉬. 2022〕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P173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UN이 정한 세계 3대 협약으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세계 사막화 방지협약이 있습니다.

1994년 UN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세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3대 협약이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정된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사막화란 '건조 지대와 반건조지대, 건조 습윤지대에서 기후변동, 부적절한 인간 활동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황폐화'를 말합니다.

2008년 몽골 전역을 덮친 '조드'로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조드'는 몽골어로 '재앙'이라는 뜻인데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축의 떼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목이 주업인 이들에게 가축은 전 재산이며, 생존과 동의어입니다. 해발 1,000~1,500m 이상에 위치한 몽골은 저개발 국가로 지금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기온 상승 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답니다. 겨울이면 눈에 덮여 있어야 할 몽골의 초원과 삼림은 눈 없는 겨울을 보내며 메마른 데다 강한 바람에 노출되면서 어디서나 모래 먼지가 날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골 국토의 77%가량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거나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답니다. 그 영향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매년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한 감염병과 바깥 활동 자제 등의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 자료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136~141 최원형, 블랙피쉬. 2022〕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P170,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3일은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평균 25분 사용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500년이 넘어도 썩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물에 젖지도 않고, 가볍게 깨지지도 녹슬지도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은 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마법 같은 물질이지요.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의 일종이랍니다. 전 세계 비닐봉지는 1분마다 100만 개 이상 사용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깊이가 10,000m 이상 되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30년도 넘은 비닐봉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정도도 비닐봉지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지구 어느 곳을 막론하고 플라스틱이 점령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수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빨대, 기타 용품 그리고 비닐봉지입니다. 더운 여름날 텀블러 물이 부족해서 결국 생수를 사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음수대를 설치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용품을 사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봐요

1.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용기를 가지고 다녀요.
2. 필요 없는 빨대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빨대를 뺄 때입니다.
3. 생분해 제품 사용도 자제를 해요.(지구 어딘가에서 옥수수 재배를 위해 숲을 파괴해야 한답니다.)
4.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하루를 살아봐요.
5.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오래 쓰고 깨지지 않는 제품을 이용해요.

참고 자료

유튜브
비닐봉지 사용 줄여! 줄여!

비닐봉투 없는 날 카드 뉴스

뉴질랜드,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얇은 비닐봉지 사용 금지(2023.6.29.)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152~156, 최원형, 블랙피쉬.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나 만의 별 찾아 보는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입니다. 2003년 7, 8월 유럽은 1540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 폭염으로 최대 7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해 유럽 전역에 가뭄으로 농업뿐 아니라 수력발전에도 타격을 받았으며, 밤에도 기온이 30℃를 웃돌았고, 극심한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눈사태와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전력수요가 부족해짐으로 인해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미국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여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지하철뿐만 아니라 통근 열차 운행 중단, 대중교통마비,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신호 체계의 마비, 통신망 정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8월 22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을 기록했고, 냉방기 가동률이 많아짐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전력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를 계속 지을 수는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 60기가 되는 화력발전소를 하루빨리 폐쇄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핵 발전소 역시 고 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에너지의 날이면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2020년 단 5분 소등했더니 총 45만 kwh에 달하는 전력이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석탄 화력발전기 1기 발전량 규모이며, 전기차 1만 2,000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5분 소등으로 지나친 전력 소비와 빛 공해를 줄이는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오늘 밤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나만의 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불을 끄세요, 별을 켜세요 22일 에너지의 날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183~187, 블랙피쉬, 최원형, 2022]

[마을발견. P98~103, 도서출판 기역, 송경애, 2020]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p169,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모든 인간에게는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식량 농업기구가 만들어진 10월 16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입니다. 굶지 않을 권리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출처:chosun.com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나 되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의 3분의 1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노벨 평화 수상자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굶은 인구는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8억 인 넘는 인구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1억 5천만 명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에는 인류의 최대 백신은 식량이라고 했답니다. 면역력이 낮을수록 질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니 식량이 백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충분한 재원이 없을 때 어떤 아이를 먹이고 어떤 아이를 살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부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 식량이 필요한 우리 이웃 모두를 먹이자며 음식은 평화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적절한 양만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확보한 비용 일부를 배고픈 사람들 돕는데 쓰자는 제로 헝거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줄이며, 모든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날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유튜브
WFP 제로 헝거 챌린지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233~237, 최원형, 블랙피쉬. 2021〕

〔모두의 착한 밥상 연구소, P17~21, 파란자전거, 노민영. 2021〕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넷째 주 금요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1992년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라는 광고인이 자신이 만드는 광고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자각에서 만든 날입니다. 광고는 필요치 않은 물건일지라도 소비하도록 부추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광고의 홍수에서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소비의 문제점을 알고 당장 갖고 싶은 물건을 싸게 판다면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서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물질의 무게가 1900년대 초만 해도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을 모두 합친 생물 총량 무게의 3%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0년에는 인공물과 자연 생물 총량과 무게가 같아졌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 불과 20년 만에 2배가 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2024~2026년에는 인공물이 자연물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물	자연물
도로, 집, 쇼핑몰, 자동차, 종이, 의류, 커피잔, 스마트폰, 플라스틱, 벽돌, 아스팔트, 금속 제품	동식물, 균류, 박테리아 등의 모든 생명체

당장은 폐기물이 아니어도 인공물은 모두 잠재적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물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은 수요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공급을 멈추지 않으니 과잉 생산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남은 물건을 처리하러 아웃렛 매장이 생기고,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넘쳐나고 싸게 살 기회마저 생기니 블랙 프라이데이는 축복인 걸까요? 왕창 세일해서 파니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왠지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당장 필요는 없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복합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당근 마켓, 굿윌 스토어, 마켓인 융, 아름다운 가게 등을 이용해 보거나 사은품이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쿨하게 거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작은 습관'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자료

유튜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EBS)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261~265, 최원형, 블랙피쉬. 2022〕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국제 산의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1일 '국제 산의 날'입니다. 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엔은 2002년 국제 산의 해를 선언했고, 2003년부터 국제 산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청이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산을 체험하고 산림 문화를 즐기며,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날입니다. 유엔에서 산의 해를 선언한 까닭은 산에 전 세계의 인구의 15%가 살고 있으며, 세계 생물 다양성을 품고 있는 곳도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산은 기후변화와 인류의 과도한 착취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움에 봉착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의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아 방하의 물은 이제는 작은 연못이나 호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둑이 터지면서 쓰나미가 되어 아랫마을을 덮치게 되면 탄소를 별로 배출하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이 빙하 쓰나미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10%의 사람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고 있고, 가난한 50%의 사람들은 고작 7%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부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피해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산지를 전체 면적의 65.2%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는 백두대간입니다, 아시아 대륙과 한반도가 단 한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바로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두대간이 휴전선에 가로막혀 있고, 도로, 골프장, 터널, 송전탑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인해 생물종 다양성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저위도에 있는 생물들이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동 통로인 백두대간은 생물들에게 비상구입니다.

산에 갈 때는요!

1. 출발지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2. 등산할 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스틱 사용을 자제해요
3.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요
4. 산에 갈 때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가져가요.
5. 산의 원주인은 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산에 가요.

참고 자료

유튜브
국제 산의 날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P261~265, 최원형, 블랙피쉬, 2022〕

2022.
현직 개발
자료 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이야기

활용 TIP

1. 생물다양성 소멸 위기! 인류의 위기!

참고 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유튜브: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생물 채널 @생물다양성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난 후 자료를 이해하면 더욱 좋다. 지구의 생명체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지구 생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구행동 실천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유치원에서는 3월 나와 유치원이라는 놀이 주제 속에서 유치원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유치원에 있는 생명체에는 유아, 원장, 원감, 교사, 행정실 직원, 식생활교육관 영양사, 조리사, 청소 도우미, 자원봉사자, 통학차량 관련 종사자 등과 여러 종류의 나무, 꽃, 물고기, 햄스터 등 다양한 직업군과 생명체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다양한 직업군의 하나라도 파업이나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유치원에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유치원에는 유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생물 다양성과 연관 지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2.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해 각종 연수 시 텀블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사진을 보낸 학부모에게는 에코 장바구니나 친환경 수세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교실에서는 플라스틱 없이 놀이하는 날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

3. 디지털 탄소 줄이기

먼저 참고 자료에 있는 타일러의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의 당신이 몰랐던 E-mail의 역습을 시청하면 좋다. 학부모에게 안내를 할 때에도 QR 코드를 먼저 접하도록 하게 하여 가정통신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4. 쓰레기 버리는 알뜰 꿀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이다. 분리수거는 업체에서 사용해야 하는 말이다. 분리배출만 잘 되어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한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도록 유아들과 또는 학부모 공개수업 시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역별로 분리배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분리배출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마지막까지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

이 자료는 플라스틱과 관련한 교육을 할 때 먼저 질문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플라스틱인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결국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내용으로 연계할 수 있다.

6.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

소등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불을 1시간 끄고 별을 보자는 9월 16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집안에 머무르며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불을 끄고 집안에 기르고 있는 생물들의 반응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왜 산불이 자주 발생할까

2023년 5월에 시작된 캐나다의 산불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한다, 캐나다의 겨울이 따뜻해짐으로 인해 땅속이 건조해지고, 전깃줄 화재가 숲속 나무에 불이 옮겨가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변 미국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산불이 되었다.

캐나다의 산불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아마존의 밀림이 줄어들고, 지구인의 산소 공급원인 숲이 점점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 유치원 내 그린 정원 가꾸기 등을 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8. 옷이 플라스틱! 패스트 패션이 뭐야

옷도 플라스틱의 원료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옷이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유아는 예쁘고 반짝이는 옷을 덜 입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학부모에게 듣게 되었다. 지구를 위한 쇼핑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9. 유리병과 뚜껑은 짝꿍

현직 모 선생님이 EBS 방송에서 유리병을 버릴 때는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교육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유리병의 입구가 깨지게 되면 재활용이 낮아질 텐데 버리는 방법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외국에서는 뚜껑을 닫고 버려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자는 환경부에 제안을 하였다. 뚜껑을 닫아 빈 병 버리자는 제안이 받아들여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병뚜껑을 닫아서 배출해도 됨이 공지되었다 한다. 유리병과 뚜껑은 짝꿍이니 이제는 빈 병을 버릴 때는 뚜껑을 닫아서 버리도록 합시다.

10. 종이는 친환경적일까?

나무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종이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플라스틱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 4월 4일은 종이 없는 날과 연관 지어 활동할 수 있다. 유아들과 나무의 소중함과 종잇조각을 이용한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거나 종이 타월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이용하여 물을 닦는다는 것 등과 연관 지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1. 생태기후환경 살리기 챌린지

이 활동은 00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계획한 활동이다. 먼저 학부모에게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한 날짜에 유아들과 실천한 내용을 웹에 올리면, 월말에 참여한 유아에게 생분해 성분의 친환경 제품을 기념품으로 주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이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부모 동아리 위기 탈출 기후 위기 팀도 구성이 되어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

12. "그냥 주세요"라고 말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하지 말고,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으로 등 포장을 최소화하는 삶이 되도록 "그냥 주세요"라고 말해봅시다.

13. 폐건전지에 자원이 숨어있대요

폐건전지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숨어 있다. 밀폐되는 용기에 담아 온 폐건전지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어 자원 재활용을 높이는 활동이다. 2022년도에 00유치원에서 여수 시청의 폐건전지 모으는 행사에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20장과 현금 20만 원을 여수 삼애원이라는 아동복지 단체에 기부하였다.

14. 동식물의 유전자 변이를 가져온대요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에 가져다 버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폐건전지처럼 폐의약품도 수거하여 보건소에 가져다주었다. 유아들이 가정에서 가져올 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면 좋다.

15.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해봐요

지금과 같은 환경의 지구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5가지 실천 내용을 모두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역할 수행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16. 담배꽁초 버리는 방법! 배운 적이 있었나요?

유아들이 줍는 쓰레기 중 가장 많이 줍는 것이 담배꽁초이다. 플라스틱 병보다 더 많이 담배꽁초를 줍는다. 담배꽁초가 버려지면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흡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잘 보이는 않는 곳이나 그냥 바닥에 버린다고 한다. 특별하게 흡연구역이 있지 않는 이상 피운 자리 근처에 대충 버린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담배꽁초를 제조사가 수거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꽁초를 제조사가 수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흡연 예방 교육 시 필히 담배꽁초를 버리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작성하게 되었다. 담배꽁초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구입한 후 담아 버려야 한다.

17. 에어컨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구요?

9월 16일은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의외로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오존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어 작성을 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는 연관성이 깊다.

나뭇잎 선생님

이대로 괜찮을까?

예전에는 기후 위기에 관한 내용을 먼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실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너무 많은 정보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작은 실천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만 바빴다. 2년째 현직연구원을 한다는 마음의 부담까지 안고 아이들과 시작한 생태 활동은 내 욕심껏 되지 않아 다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도 할 수 없다. 또한 내가 실천해야 아이들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는 텃밭, 종이 아껴쓰기, 우유갑 모으기이지만 과정 속에서 생기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작게나마 실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환경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의미도 모른 채 아이들을 재촉하기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서두르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꽃을 피워보려 한다. 이야기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어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개미 선생님

현직연구원이 되기 전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가정으로 보낼 때 불필요한 포장을 애써 했었다. 또한 옷을 자주 구매해서 한두 번 정도 입고 버리기 일쑤였거나 식탁을 닦을 때 물티슈를 찾았다. 나 역시도 3월 초에 햇살 아이들과 같은 생태환경과 무관한 삶이었다. 현직연구원을 하면서 생태환경을 매일 마주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찮음으로, 일방적으로 정리되었던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 우리 반 아이들, 학부모, 동료 교사, 현직연구원들, 함께 공통된 주제로 호흡하고 모두가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수고로움들이 느껴졌다.

작은 수고로움이 모여 더 나은 오늘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생태공동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해야겠다.

호박 선생님

"꼬마 농부들의 텃밭에 놀러 오세요!"

올해는 편식하는 아이가 대부분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벌레를 밟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텃밭을 통해서 편식 개선과 생태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이에 초보 농부를 자처하고 텃밭에 관한 책과 연수로 배우고 실제로 실천하였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란만한 점은 나의 식생활도 바뀌고 철마다 바뀌는 농작물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수학급이라서 못하고 안 한다는 생각보다는 텃밭 활동을 통합 활동으로 삼아 통합반 선생님과 함께 실천해 나가면서 즐겁게 활동하였다.

텃밭 활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원래 채소를 잘 먹었던 아이처럼 시나브로 변화되고 있다.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교사로서 아이들과 요리 활동을 하면서도 채소를 잘 먹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는데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씨앗 선생님

자신들이 심어 놓은 옥수수를 몽땅 먹어버린 고라니를 원망하던 아이들에게 "너흰 고라니한테 맛있는 먹이를 준 멋진 친구들이야."라고 말하자 화를 내던 아이들은 웃으며 고라니를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다.

꿈틀꿈틀 기어가는 애벌레를 보고 징그럽다고 하지 않고 "와 애벌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자."라고 말하면 손을 대지 않고 눈으로만 본다. 교사의 말 한마디와 태도가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 또한 많은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담배꽁초가 얼마나 물을 오염시키고, 무심코 의류 수거함에 넣은 옷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먼 나라 사람들에 대해 전해 들은 부모님들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해주셨다.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실천할 가능성을 넓힌다.

거미는 구석에도 멋진 집을 짓는다. 새는 나무에 예술적인 둥지를 짓는다. 모두에겐 각자의 집이 있다. 지구는 이 모든 아름다움을 포용하는 우리 모두의 집이다. 함께 살아야 할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마음대로 하지 않고 커다란 우리들의 집 지구에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지개 선생님

올해 현직연구원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은 지구의 일부분이며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큰 얻음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교육이 지금 지구의 위기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구의 생명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중의 한 부분을 올해 아이들과 찾아보고 실천해왔다.

우리 아이들의 나와 했던 의미 있는 실천 행동이 몸에 익은 습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길 바란다.

초록빛 선생님

주변에서 생태환경교육 연수를 듣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얼핏 볼 때에는 그저 나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 머뭇거렸다.

언젠가 찾아보고 공부해야지 하는 어떤 한 영역으로 남겨두고는 그러다가 현직연구원 과제를 보면서 일년동안 많이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해 보며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일년이 지나갔다. 많이 알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이전처럼 나도 하고 있지 라는 안일한 마음은 사라졌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떤 것이 달라져야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조금 찾은 것 같다.

민들레 원감 선생님

생태환경교육 연구과제와 함께한 2년.

일주일에 2일 이상 채식하기,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 먹지 않기, 랩과 비닐봉지 대신 뚜껑 있는 밀폐 용기 사용하기, 왕복 10km 이내는 걸어 다니기,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시내버스 타기 등은 건강한 삶을 위한 스스로와의 약속이며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사항이다.

2년간 생태환경교육을 공부하며 나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고, 가족들에게도 당부가 늘었다. 나는 하루 한 잔 커피 마시기를 실천하고 있다. 여전히 원산지로부터 커피 원두를 가져오고, 커피를 만드는 동안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이면 하루 두 세잔 마시던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집에서 만든 커피를 2년째 같은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고 있다.

얼마 전에 전역한 아들은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오래 씻는지? 짧게 씻었던 것에 대한 보상인지? 족히 30분은 걸린다. "○○아, 샤워 시간 좀 줄이자." 하면 "예"하고 대답하면서도 나를 보며 "어머니, 요즘 달라졌어요." 한다.

그래 달라질 수밖에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단다.

꼬드기 참새 원감

현직연구원 2년 차를 마치며

「지구 온난화가 문제란다.」 내가 뭘 했다고?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야! 그것도 2030년 안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뭐야 시간이 없잖아!!!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된 거지? 내 나름대로 지구 생태 환경을 생각하며 실천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다는 미안함과 무지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무엇을 모르고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야! 머릿속이 한참 동안 혼돈 속에 우왕좌왕 거렸다. 혼돈 속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년 동안 생태환경 관련 연수나 강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었다.

지구는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생명체를 보듬고 지켜주었다. 우리가 이제는 지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다.

얼마 남지 않은 교직 8년은 생태 전환교육을 실천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전깃줄에 앉아 짹짹거리는 참새처럼 어디든 날아가 함께하자 하련다.